

북한의 보건실태

인 요 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유진벨 재단

Health care in North Korea

John Linton

Yonsey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verance Hospital · Eugene Bell Foundation, Seoul, Korea

본인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배려로 1997년 1월에 유진벨 재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유진벨 재단은 1985년 한국에 장로교 선교사로 파견되어 이 땅에 묻힌 의증조부 벨목사를 기념하여 1995년에 설립되었다.

그 동안 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모금활동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7,000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진벨 재단에게 의료사업의 기회가 주어졌다.

모친 인애자 순천기독교결핵재활원장이 지난 30여 년간 전남 순천에서 결핵요양소를 운영해 온 가족적 배경과 본인이 의료인인 관계로 97년 7월에 두 번째 방북부터는 결핵예방병원과 요양소 등을 돌아봄으로써 결핵사업에 국한되기는 하나 북한의 보건실태를 접할 수 있었다.

북한은 60년대 말에 이동엑스선차량 70대를 도입하여 전국적인 결핵예방사업을 시행, 75년도에는 결핵퇴치를 자부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해일과 두 해에 걸친 홍수 피해 그리고 가뭄으로 이어진 자연재해는 식량사정을 더욱 더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영양결핍에 의해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만연을 가져왔다. 환자의 입원치료와 예방사업을 하던 각 도의 결핵예방병원의 이동엑스선 차량들은 노후되어 순회검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내에서 떨어진 곳들에 위치한 요양소들에는 검사를 위한 시약과 결핵

약이 부족한 상황이다.

1997년 9월 19일 북한 보건부부장의 명의로 결핵예방과 치료에 유진벨 재단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과 함께 결핵병원 1개소, 도 단위 결핵예방병원 12개소, 군 단위 결핵요양소 60개의 명단을 보내와서 현재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의료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치료용 결핵약과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결핵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이동엑스선 차량, 간접촬영 필름, 검사시약 등이다. 북한 보건당국자들은 유진벨 재단에서 요구하는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측에서 지정한 요양소 방문 허락은 물론 약품분배 확인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결핵사업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건강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사업으로 간주된다.

북한 국민의 영양 상태 향상은 이러한 결핵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보건상태를 향상시키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오늘 발표 내용은 이러한 개념을 함께 하는 지역사회영양학회 회원들에게 1997년 이후 유진벨 재단이 북한에서 결핵사업을 수행하며 접했던 북한의 보건실태를 소개하고자한다.